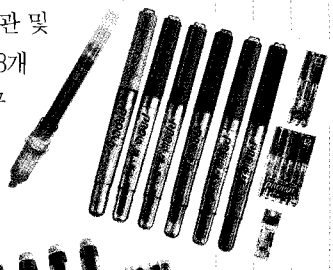
환경 친화 제품 생산, 홍보에 박차를 가한다

산업환경관리협회와 일본경제신문사 주최로 지난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일본 도쿄에서 환경제품전이 개최되었다. 이를 참관하고 일본 기업들의 환경 정책 및 재활용 현황을 리포트했다. 그 내용을 개괄적으로 정리해 본다. 편집자 주

일본 환경제품전 참관 및 환경 경영 기업 방문

● 도쿄 빅사이트전시장에서 개최된 환경제품전 참관

(사)산업환경관리협회와 일본 경제신문사가 공동 주최하고 통산성을 비롯한 정부기관 및 민간 16개 경제단체가 후원한 이번 제품전은 그린구입네트웍 등 민간 소비자 단체 및 13개 환경 단체가 협찬하고 일경에코로지 등 4개 환경 관련 기구가 협력하는 등 민산관이 공동으로 준비한 것이 눈에 띄었으며, 4일간의 개최 기간 동안 5만 명 이상이 참석하였다. 전시회의 참여업체(단체)는 총 250개소나 되었다. 환경 상품 제조업체로는 174개 업체가 참여했다. 폐플라스틱 재활용 제품 소개에 있어서는 페트 용기의 재생 섬유화 및 의류 제조 기술이 많이 소개되었고, 스티로폼 재활용의 경우 문구류 중 볼펜류의 겉 부문이 소개되었다.



스티로폼 재활용 문구

● Cannon 본사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ISO 14001 취득

사무기기 제품에 대한 전과정평가(LCA) 추진 내용은 제품의 설계, 생산, 운송에서의 환경 부하량의 감축 사업, 부품, 토너액, 포장 용기의 재활용 촉진 사업이 매우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었다. 사무기기에 대한 스티로폴 완충 포장재의 경우 캐논 본사 및 판매 대리점을 통하여 수거(98년도 회수량 49톤, 2000년 회수 목표 200톤)하여 재생펠릿 가공업체 일신공업(日新工業)에게 위탁 처리하고, EPS 비드 생산업체 일립화성(日立化成)이 재생 비드를 생산, 형물 가공업체가 재생비드와 신재를 50 : 50으로 혼합하여 재생 완충 포장재를 생산하여 캐논사는 최종적으로 가전품 포장재로 사용하고 있다.

● 플라스틱처리촉진협회는 석유 화학 제품에 대한 전과정평가목록(LCI) 연구 사업 실시

LDPE, HDPE, PP, PS, EPS, PVC, B-PET 등 범용 플라스틱에 대한 원유 생산부터 제품 생산 단계까지의 에너지 소비량과 대기 오염 물질, 수질 오염 물질, 고형 폐기물 등의 환경 부하량 자료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플라스틱 재활용 방법의 선택 시에는 종류별 에너지 소비량 측면뿐만 아니라 폐플라스틱의 배출 상황과 플라스틱 본래의 성질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 일본산업환경관리협회는 통산성으로부터 제품 등 라이프사이클 환경 영향 평가 기술 개발 연구 사업을 5개년 용역 과제로 위탁받아 시행 중

그간 자료 목록 작성을 위해 자원 및 에너지, 소재, 부품 및 제품 등 관련 단체별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이후에는 LCI 자료를 이용하여 영향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의 분류화, 통합화 지표 개발 등을 통해 일본의 독창적인 영향 평가 기법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